

SPECIAL DSU

동서대의 특별한 힘이 이루어낸
탁월한 결과

DSU PRIDE

LINC+ 육성사업 1단계에서
'매우 우수' 평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DSU NEWS



Special DSU

동서대의 특별한 힘이 이루어낸
탁월한 결과

06

Keyword

믿고 선택하는 대학, DSU

08

Interview

동서대 기획처장 조대수 교수

10

DSU Pride

미래를 여는 동서대의 혁신적 성과들



Cover story

동서대는 꾸준히 도전하고, 혁신하며 새로운 교육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동서대는 교육이 나아갈 방향, 청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재가 가고자 하는 밝은 미래를 향한 길, 동서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DSU NEWS

2019 Vol. 375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75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19년 8월 20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굿디자인연구소



Deep

깊이 있게 바라본 DSU

16

DSU Global

미국·중국·일본 SAP 체험기

아시아 현지 탐방으로 전공실력 살려주는 DAIP

이탈리아에서 온 세계적 공간 디자이너 이코 밀리오레 동서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 초빙

동서대에 연일 해외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 방문

Wide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본 DSU

Passion

열정이 있는 청년 DSU

30

People

월드바리스타대회 한국인 최초 1위 전주연 동문
광고회사 그룹아이디디 영상감독 김철진 동문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경훈 동문

36

I'm DSU

뮤지컬과 20주년 기념 뮤지컬 페스티벌을 열다
IBK기업은행에 당당히 첫발을 내딛다
하청민 동문
끝없는 열정으로 각종 대외활동을 섭렵하다!
남유진 학생
입학 후 1년 6개월, 동서대에서
나의 꿈을 발견하다 노찬빈 학생
동서대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에서
'총장상' 받은 김민기 학생
유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서대 영문 홍보영상

46

Scene

2019 International day

48

Space

교양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민석교양대학

52

Share

국제기술봉사단 해외 농촌지역 봉사&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56

DSU-toon

동서대 3인의 잊지 못할 여름방학

60

Record

청춘이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
민석축제 & 체육대회

62

DSU News

제9대 장제국 총장 취임식 외



앞서가는 동서대의 혁신적 교육 방식에 물음표를 던지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동서대가 이끄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해왔습니다.

동서대의 이 특별함은 탁월한 결과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등 수많은 교육기관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인증 및 사업성과들은 대학의 역량과 대외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동서대의 도전과 혁신, 그에 따른 결과는 인재의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동서대의 특별한 힘이



이루어낸 탁월한 결과

믿고 선택하는 대학, DSU

국책사업 선정 및 인증



LINC+ '매우 우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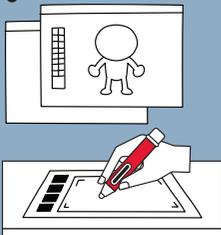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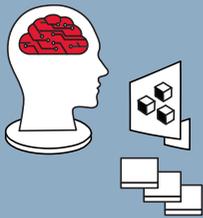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단계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동서대는 3년 동안 132억 원을 지원받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동서대가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II유형)에 선정되어 3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의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80억 원

13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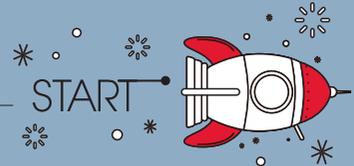
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선정

부산시 주관 '2019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창작 IP를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동서대가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8억 2,600만 원을 지원받아 4개 학과(120명)를 운영하게 되었다.

8억 2,6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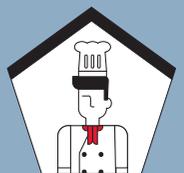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동서대는 지난 3년간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2018년 성과평가 결과를 인정받아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획득

동서대 사회교육원은 '세프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울·경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IPP 일학습병행 공동훈련 센터 성과평가 'A' 등급

동서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이 2018년도 IPP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K-Move 스쿨 7년 연속 선정

동서대가 해외취업사업인 '2019 K-Move스쿨'에 미국 산업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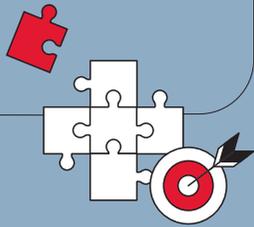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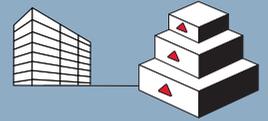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 2년 연속 선정

동서대가 '2019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동서대는 중남미 학생 20명에게 첨단 ICT 산업 기본기 교육을 하게 된다.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동서대가 부산시 지원 '2019년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미취업 졸업생,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동서대 국제물류학전공은 부산시 지원을 받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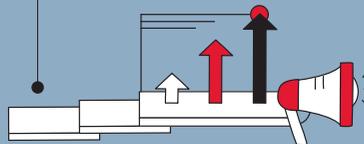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동서대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으로서 지원인력의 전문화, 산업체 수요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선정

학생취업지원처가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 달간 동서대에서 교육 후 베트남, 일본 등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현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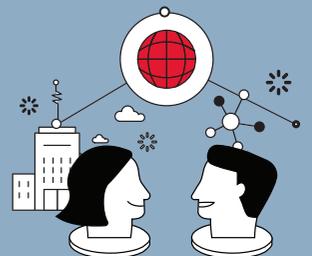


광고홍보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등급

'201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광고(광고홍보학과)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학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업체 임직원 등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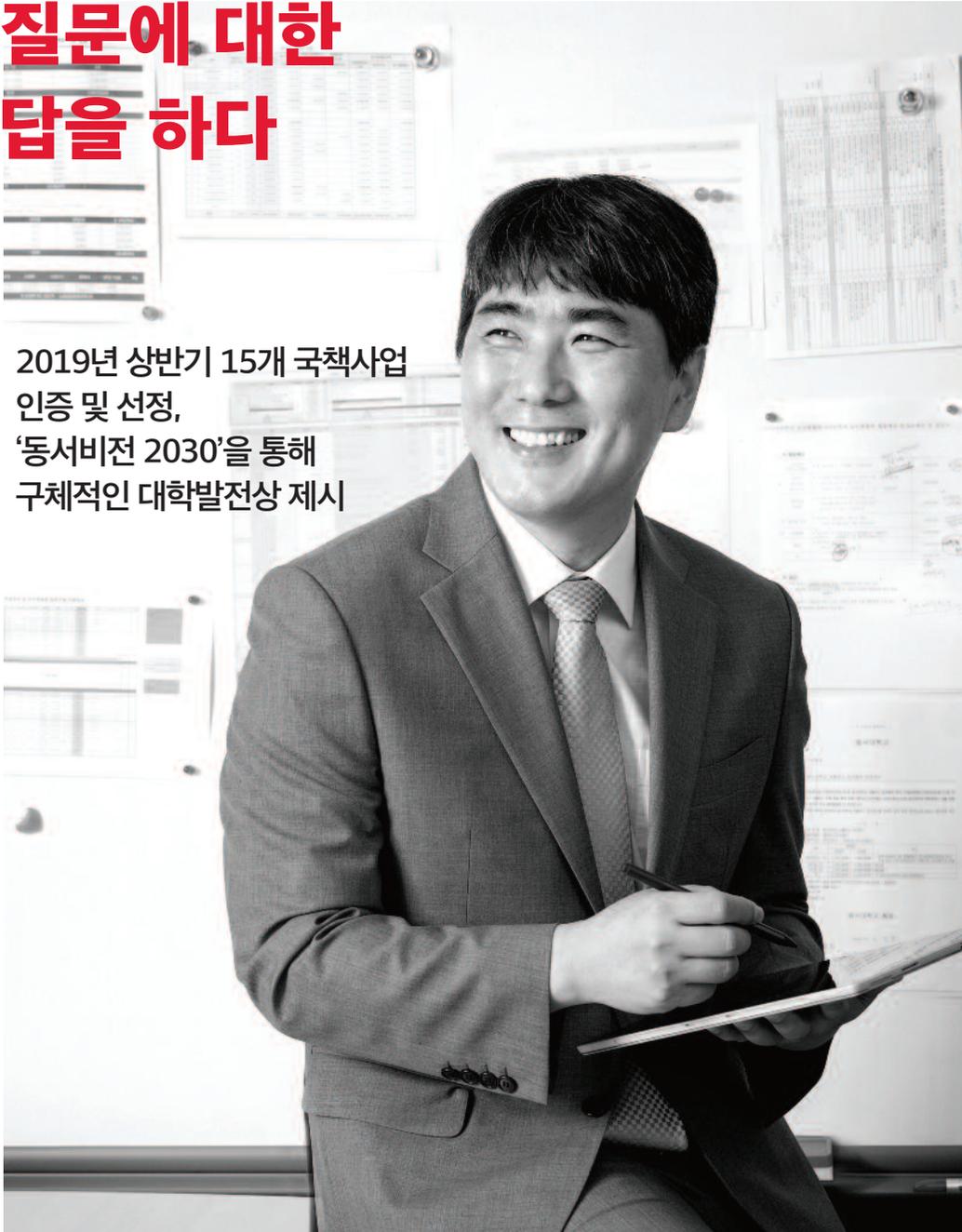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서대는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한층 더 힘을 실게 되었다.



Interview with 동서대 기획처장 조대수 교수

“왜 동서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2019년 상반기 15개 국책사업
인증 및 선정,
‘동서비전 2030’을 통해
구체적인 대학발전상 제시



올해 상반기, 유달리 동서대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다.
수많은 대학 국책사업과 정부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에 많은 이가 “왜 동서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동서대 기획처장인 조대수 교수는 말한다.
“단지 사업 선정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동서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이다.

늘 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동서대지만, 올해 상반기에 특히 많은 사업 및 인증을 받았다. 이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지난해 다소 뜻하지 않은 평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의 조직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내분이 일어나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힘을 모아, 이전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가는 조직이다. 지난 1년간의 상황으로 볼 때 동서대는 후자다. 동서대의 저력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는 구성원과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는 조직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책사업 선정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부담감도 컸을 텐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

모든 국책사업의 선정 과정이 힘들었지만,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동서대의 종합적인 평판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지난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함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이동훈 교수(계입), 박성미 교수, 성치경 교수, 김영 교수, 이자혜 교수, 이은준 교수, 김중건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한다. 이 밖에도 20여 명의 교수, 직원들께서 애써 주셨는데, 지면 관계상 양해를 바란다.

에피소드라 하면, 집필진 20여 명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집필 및 컨설팅 일정 공지용 특방이어서, 공지 글을 읽었다는 숫자만 감소할 뿐, 댓글도 달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런데 항상 저녁 5시 30분만 되면 활기찬 공간으로 바뀐다. 김중건 교수가 저녁 메뉴 주문과 관련한 공지를 그때쯤 올리는데, 때를 놓치면 주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다. 정말 활기차게(각종 이모티콘이 동원되며) 분위기가 바뀌기에, 같은 특방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웃음).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저녁 주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나 인증 중 특히 주목해야 하거나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점은, 지난해 다소 실추되었던 동서대의 명예가 단번에 회복된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서에는 대학혁신을 위한 37개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앞으로 3년간 이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에서 ‘전

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에 따라 가장 많은 예산을 받게 되었다. 특히 동서대 LINC+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LINC+사업 단계평가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황기현 교수, 김형우 교수, 임혁 교수, 정도운 교수, 그리고 김정숙 교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집필진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다양한 국책사업 선정으로 동서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동서대는 어떤 모습일까?

동서대는 좋은 대학이다. 여러 국가 지원 사업 및 인증 획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나빠지고 있으나, 우리 대학은 동남권에서 가장 특색화된 대학이자 가장 글로벌화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동서대는 동남권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기획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이번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2년간의 동서대 발전 비전에 대한 밑그림을 담은 ‘동서비전 2030’이 완성되었다. 동서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각각의 세부 사업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추진할 예정인데, 기획처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기획처장으로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의 시대가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3포 세대에서 시작해 이제는 7포 세대로서,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꿈,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다고 하니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한 사람의 선생으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이사장님께서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하셨던 말을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Never, Never, Give up!” 동서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학은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서대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인성교육부터 글로벌, 산학, 취·창업 등 동서대에는 대학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있다.
때문일까, 동서대는 올해 상반기 LINC+사업 2단계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등 20여 가지에 달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그 파위를 입증했다.

대학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이곳, 동서대에

미래를 여는 동서대의 혁신적 성과들

Pride of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의 이공계는 지난해
2019 정부 R&D사업 다수 선정 쾌거!
2019년 정부 R&D사업 다수 선정 쾌거!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 LINC+ 육성사업 2단계 사업수행
- IPP일학습병행제
-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 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산학협력으로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추구하다

동서대만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프로그램

대학은 한 분야의 특화된 전문 인력을 길러내 지역 인재들의 취업과 창업의 활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우수하고 경쟁력 강한 인재를 얻어 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이다.

동서대는 단순히 학생들을 현장에 맞춰 교육시켜 취업하는 데 그치는 산학협력 모델이 아닌, 학생 스스로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이다.

LINC+사업은 훌륭한 산학협력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정부와 대학이 함께 이끌어가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LINC+사업 1단계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은 2단계('19년~'21년) LINC+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2단계 LINC+사업은 수도권에서는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16개교가 선정되었으며, 동남권에서는 경상대, 동서대, 부경대 등 17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중 동서대는 올해 4월 10일 'LINC+사업 1

단계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132억 원이라는 동남권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음으로써, 동서대의 저력을 다시금 대외에 입증했다. 동남권에서 유수의 대학을 제치고 동서대가 최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특화된 산학협력 모델' 때문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사업 1·2단계를 수행한 동서대는 LINC+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특성화 분야-문화·예술콘텐츠-세계적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 대학'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동서대는 문화콘텐츠 특화 산학협력을 구축한 뒤 문화콘텐츠 기획·제작뿐 아니라 판매·사업화를 추진하며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 문화콘텐츠 Start-Up을 통해 교원·학생창업으로 연결시켰으며, 문화콘텐츠 합작회사(SPC)를 설립했다. 또한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모듈의 지속 운영으로 실무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교과목 구매로 LINC+사업 2년간 2억2,000만 원의 산학장학금이 유치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 4월 2일 발표된 '2018년도 IPP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 또한 탄탄하게 구축된 동서대의 산학협

력 모델 덕분이었다. 2017년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사업 운영 대학에 선정된 동서대는 산학공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 왔다.

IPP사업단은 20년 이상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거나 회사를 경영한 전문가를 산학협력 전담교수로 초빙하여 기업·학생 매칭, 실습 수행 평가를 관리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율과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비 외에도 대학에서 IPP장학금(2억 4,000만원) 및 현장실습비(2억 4,000만 원)를 별도 책정하여 매월 80만 원(장학금 40만 원, 현장실습비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현장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

동서대는 지역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물류학전공’과 ‘디지털콘텐츠학부’가 각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국제물류학전공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물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스마트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시 주관 청년지원 프로그램인 ‘2019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사상구청과 협력해 ‘창작 IP를 활용한 캐릭터디자인 전문가 양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상구청과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 청년 캐릭터 디자인 스쿨’과 ‘부산 청년 아토포이 스쿨’ 2가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캐릭터디자인의 제품화에서 라이선싱 산업에 이르기까지 캐릭터 산업의 전 과정을 교육해 지역에 캐릭터 디자인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서대는 단순히 학생들을 현장에 맞춰 교육시켜 취업하는 데 그치는 산학협력 모델이 아닌, 학생 스스로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광고홍보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등급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획득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



‘201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광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산업계에서 동서대의 교육이 앞서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인재의 미래를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교육혁신모델 제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재들을 교육하는 방식도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 나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동서대 교육의 기본 모토이다.

동서대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II유형에 선정되며 동서대의 교육 철학과 탄탄한 역량을 다시금 증명했다.

동서대를 비롯해 전국 4년제 12개 대학이 선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을 둔 대학 혁신계획을 평가한 뒤 예산을 지원해 대학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역량강화대학 선정 대학은 총 66개교(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로 이 가운데 56개교(대학 27개교, 전문대학 29개교)가 해당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교들이 제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토대로 정원 감축 권고 이행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22개교(4년제 대학 12개교)를 선정했다.

사업 참여에 신청한 27개 4년제 대학 중 동서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12개교가 패자부

활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는 6개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덕성여대와 한경대가 선정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동서대와 한국해양대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카톨릭관동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각각 선정됐다. 호남·제주권과 충청권은 3개교씩 선정했다. 호남·제주권은 순천대, 우석대, 조선대가, 충청권은 건양대, 목원대, 유원대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동서대와 한국해양대다. 특히 동서대학교는 지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실추되었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대는 3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동서대는 ‘달란트교육체계 고도화’, ‘개방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고밀도 경험학습체계 구축’, ‘데이터기반 평가관리체계 구축’ 등 7개 특성과 추진전략을 통한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혁신모델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속적인 교육 혁신의 결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가 ‘201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광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

아 산업계에서 동서대의 교육이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학이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업체 임직원 등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산업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선정한 결과이기에 더욱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평가다.

이번 광고홍보학과 외에도 그동안 동서대는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통신 분야(2017), 건축(시공) 분야(2016), 식품·게임·미디어 분야(2015), 환경 분야(2014), 정보통신 분야(2013)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해 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평가 결과’에서 동서대가 ‘세프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울·경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부산 시내 20개 중학교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학의 교육기부는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선택과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에 이번 동서대의 인증 획득은 큰 의미가 있다.

- K-MOVE스쿨
-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청년, 세계로 나아가다

해외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운영

‘동서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로벌’이다. 체계적이고 개성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과 사업들로 동서대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동서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사업인 ‘2019 K-Move스쿨’에 3개 과정이 선정됐다. 올 2월에 1차로 선정된 과정은 미국 산업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20명),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20명),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 등 3개 과정이며 모집인원

은 총 55명이다. 선발된 학생은 7월부터 8-9개월 동안 직무·어학·필수·소양교육을 받은 뒤 미국, 일본 현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K-Move스쿨 학생들에게는 국내외 교육비 전액과 교재비, 시험응시료, 비자수수비(일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 인재들의 글로벌 취업 주도를 위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부산광역시와 동서대 학생취업지원처와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공동운영하는 이 사업은 해외로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IT분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청년 적합 직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해외 학생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동서대는 국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국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동서대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행하게 되었다. 동서대를 비롯해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전국 4개 대학만이 사업에 선정되었다. 동서대는 이 사업에서 중남미 ICT Convergence(ICT 융합) 분야를 담당해, 4차 산업혁명의 부상(연결 및 융합 기술혁명)에 대비한 컴퓨터공학, 콘텐츠공학 또는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한 중남미 학생 20명에게 교육하게 된다. 연수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이며 참가 중남미 대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숙박비, 수업료, 보험료 등 체류비용 일체가 지원된다.

다국적 대학생들 간 교류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와 충남대, 한국외대 등 전국 15개 대학과 함께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동서대는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며, 동서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외국인 학생 각 5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한다.

동서대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었다.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 평생교육지원사업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창업의 발판이 되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 허브 역할 수행

동서대가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 및 기관을 통해 고급 기술 및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의 시제품제작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서대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2016년부터 3년간 동서대가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2018년 성과평가 결과가 크게 반영되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동서대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및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청년 진로개발과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총 7개월로 예정된 협약기간 동안 최대 1억 원의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동서대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청년 진로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 청년들의 진로개발 및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끝없는 배움의 길을 위한 동반자

동서대는 취업하지 못한 학생부터 취업 후 배움을 원하는 만학도까지 '배움의 기회'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선, 국내취업분야에선 2019년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미취업 졸업생,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성적하위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태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은 3~4학년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취업멘토링, 선배와의 만남, 기업탐방, 현장실습, 기초 직무자격증 취득반 운영(전산회계, ITQ/ICDL 등 4개 과정), 1일 집중 교내취업캠프, 채용박람회 등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8일에는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만학도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는데, 이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하는 등 대학유형별 자격에 맞는 성인학습자가 지원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자들은 수능 점수 대신 맞춤형 전형으로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대학들은 최대 2022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동서대는 올해 8억 2,600만 원(4개 학과 120명)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는 첫 걸음!

SAP 체험기 _ 미국·중국·일본

동서대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중 SAP의 인기는 단연 높다.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생생한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까지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지원 아래 미국(호프국제대학), 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 일본(일본경제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반짝반짝_빛나는_ HIU_생활기

글_뮤지컬과 15학번 주은비

미국 SAP 장학생으로 선정되던 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학연수도 문화체험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 기대됐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HIU에서의 4개월은 가장 빛났던 순간들로 기억될 것이다.

SAP-USA





#일상에서의 소확행



학교생활의 좋은 길잡이



영어실력 폭풍성장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브런치타임

일주일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교내 카페테리아는 유학생들의 작은 소확행! 식사권은 일주일 동안 15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생증에 칩수가 충전되어,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처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말마다 밖으로 구경 다니기 바빠서 카페테리아를 잘 이용하지 못했는데, 시험기간에는 학교 지박령이 되어 카페테리아를 200% 활용했다.

Peer mentor 활동

HIU(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 도착한 첫째 날 Peer mentor 조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멘토 모임을 가지는데, 초기에는 멘토들이 교내 시설 탐방과 학교 주변 삶에 대한 정보를 주로 안내해줬다. 이후부터는 특정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 ESL Director 선생님인 Judy가 총기 관련 문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줄 때에도 멘토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곤 했다.

English through Film & Drama

미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어단어 표현들을 배우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English through Film & Drama'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미국에서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배우다 보니, 트렌드 슬랭이나 표현법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고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은 대사들이 차츰차츰 들리기 시작할 때의 기쁨과 희열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이 과목 덕분에 미국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기간에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놀면서 전공 공부까지 하는 법, CHOIR 합창 동아리

CHOIR은 HIU 내 유일한 합창 동아리였는데, 뮤지컬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선택했다. 한국에서 전공 수업을 할 때에는 뭔가 항상 엄격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CHOIR은 미국 학교 동아리라서 그런지 언제나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진행됐다. 열심히 즐겁게 준비해서 마지막 공연도 멋지게 해냈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동아리 멤버 모집 메일은 수업 시작과 거의 동시에 오는 편인데, 이때 바로 결정을 해야 수업 시간표와 충돌이 없다.

HIU인의 여가시간 활용법, 과제 그리고 운동

수업이 항상 5시에 끝나곤 해서 저녁 약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일과 후보다는 틈틈이 있는 공강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 공강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과제를 하며 보냈다. 학교 앞에 '85degree'라는 대만 베이커리 카페의 'Sea & Salt coffee'와 'Share tea' 가게의 버블티가 나의 최애 디저트 메뉴였다. 이외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며 보냈다. 미국의 고칼로리 음식 속에서 운동은 필수! 나는 학교 앞 휘트니스 센터에서 정기 회원을 구입해 꾸준히 운동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도 그 미래는 창대하리라

글. 식품영양학전공 17학번 서지예

K-Pop 열풍과 함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비비고, SPC 등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 및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식품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그 나라에 찾아가서 문화를 배우보는 경험이 필요했다. 더욱이 식품영양 전공인 내게 해외 연수는 필수코스나 다름없었는데, 때마침 중국 SAP 기회가 찾아왔다.



SAP-China



한국과 닮은 듯, 닮지 않은 수업 방식

중국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법, 회화, 서예, HSK, 읽고 쓰기, 듣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분반고사를 친 후, 해당 레벨에 맞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도 올라가니 난이도도 차츰 높아진다.

중국어 수업이 한국과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업시간이다. 통상 한국은 하나의 클래스가 50분이고, 클래스가 끝나면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1교시가 총 90분으로 45분 수업 후 5분 휴식, 다시 45분 수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처음 한 일주일만 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님이 학습 자료로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하는데, 중국어 수업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따라 읽고, 쓰고,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예 과목은 분반 없이 SAP학생 모두가 모여 함께 수업을 듣는데, 붓으로 획을 그리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한-중 언어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을 상호 매칭하여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들을 네 명이나 알게 됐다.

주말에 틈틈이 떠난 소소한 중국 여행

학교가 위치한 우한에는 관광지가 제법 많은 편이라서 주말 시간을 활용해 나들이가 가기 좋다. 그중 악양루, 등왕각과 함께 중국 3대 누각으로 불리는 '황학루'가 있어, 첫 나들이 때 바로 찾아가봤다.

한수이강이 합류하는 양쯔강 남쪽 기슭의 빼어난 경관 속에 세워진 황학루는 당나라 시인 최호가 지은 시 <황학루(黃鶴樓)>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하다. 건립 이후 여러 차례 훼손됐다가 재건됐고, 복구될 때마다 높낮이와 규모,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다.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연못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다. 여러 정원과 볼거리를 지나다 보면 장엄한 위용을 뽐내며 들어서있는 황학루에 닿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돈을 내고 종을 쳐보는 재밌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내부에는 거대하고 근사한 그림이 많았고, 꼭대기 층에서 바라본 뷰는 최고였다.

우한은 중국의 스페인 거리로 불리는 복합쇼핑센터 광구광장도 유명하다. 거리를 비롯해 광장 안에 지어진 건축물 모두 스페인을 기본 테마로 하여 유럽풍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광구광장 안에는 영화관, 카페, 의류숍, 액세서리숍 등 다양한 쇼핑 공간이 갖춰져 있어, 주말이면 밤 디딤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해진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울렛 느낌과 비슷하다.

내 인생에 큰 경험과 배움이 되어 준 기회

이번 중국 SAP를 다녀와서 여러모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았다. 일단 내가 이 연수를 위해 중국어 공부를 준비했고, 지금도 계속 배움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수확이다. 나는 학과도 그렇고 중국어는 1도 모르는, 중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중알못' 중 한 명이었는데 연수 후에는 나름대로 중국과 연결고리가 깊고 단단해진 느낌이다.

SAP에서 중국어 공부를 빼도 남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바로 그 나라의 국민과 친구가 되어 외국 문화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에 떠나기 전에는 공산국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선입견 같은 게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도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모두 깨끗하게 지워졌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월등히 많았다.

SAP 세 글자는 많이 들어봤을지 몰라도 실제로 신청한 후 통과되어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경쟁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저 막연한 생각과 계획에 서만 그치고 실행조차 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SAP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아마 그 어디에서도, 돈 주고도 하지 못할 멋진 경험과 배움이 될 것이다.

TIP.

- ① 한-중 언어교류 프로그램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회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 ② 학생 할인이 적용되는 관광지가 많으니, 놀러갈 때는 언제나 학생증을 꼭 챙겨가자.
- ③ 이동 시에는 중국의 우버 '디디(DiDi)'를 이용해보자.

열정과 패기 하나로 도전한 한 학기 여정

Interview with
이벤트·컨벤션학전공 17학번 양경아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모 공유형 숙소 예약 플랫폼 CF의 문구처럼, 직접 그 나라에 살아보며 그 나라의 학교에서 공부까지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기대 하나만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날아간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뜻밖의 시련에 부딪히며 많은 것을 직접 느끼고 배우게 된 양경아 학생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SAP-Japan



일본 SAP에 신청하게 된 계기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지금까지는 깊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이후 학교에서 기초 일본어 수업을 듣고 일본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까지 다녀오니 더 많은 관심과, 좀 더 이 나라를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하며 건문을 넓히기 위해 SA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어가 많이 서툰 상태였기에, 합격 사실을 알자마자 일본어 학원에 수강신청부터 했어요. 또 제 목표가 최대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도 모았습시다.

일본의 수업 방식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모든 클래스가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십, 많게는 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많은 반면 일본은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교수님들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업 집중도가 훨씬 높았고 이런 부분이 제게 잘 맞았습니다. 또 다른 점은, 기본 수업 시간이 90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50분 수업인데 반해, 거의 배 가까이 길어서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또 중간고사가 없는 대신 기말고사 비중이 크고, 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는 시험이 있어서 언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학과 수업 이외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SAP 프로그램의 일부로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다자 이후 구경을 하고 멘타이코 공장에서 직접 명란젓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가부키 공연을 보면서 일본 전통문화 체험도 해 봤어요. 또 온 좋게도 SAP 기간에 후쿠오카 3대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돈타쿠'가 열려 일본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외에도 처음 경험하는 기숙사 생활 자체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이 새로웠어요. 과제가 있을 때, 친구들과 밤새워 의논하고 도와가며 함께 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는 일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반대로 저는 일본어를 배우며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일본 현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같은 아시아권이면서 한국과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아 적응이 힘든 점도 없지 않았습시다. 사소한 예로 여행 때는 그저 맛있게만 느꼈던 일본 음식이 실제로 오래 살아보니 어찌나 짜고 느끼하던 지요. 음식이 안 맞아서인지 장염으로 고생한 친구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병원 가는 일도 까다롭고 약값도 대체로 비싼 편이라 아플 때마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환승 제도도 없는 데다가 비싸기까지 한 일본의 교통비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일본어 회화 실력이 SAP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일본 SAP에 오기 전에는 기본적인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왕초보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을 늘 끼고 살았습시다. 그런데 언어는 정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느는 것 같아요. 떠나기 전 공부도 많은 도움이 됐고, SAP가 끝난 지금은 혼자서 여행을 해도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만큼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일본 워킹홀리데이에도 도전해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SAP를 준비하는 동세대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청춘의 한 시절을 타국에서 보낸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주니, 본인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무조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끝나면 피곤하다고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 쉬는 날에는 여러 곳에 다녀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알차고 지혜롭게 SAP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현지 탐방으로
전공실력 살려주는

DAIP

클래스가 다른 동서대의 하계 계절학기 수업



인도네시아 탐방 중인 일행들



동서대에는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재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DAIP(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라는 이름의 하계 계절학기 과목.

매년 여름방학 2주 동안 교수님과 함께 아시아 지역 탐방을 통해 전공지식과 학점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DAIP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였을까.

아시아탐방프로그램(DAIP)에 대해 자세히 알기

학생들에게 항공료 전액과 숙박비 일부(10만 원까지 학교지원, 추가 금액은 본인 부담)를 지원하는 DAIP는 20시간의 국내 및 해외현지 수업을 통해 하계 계절학기 교양학점으로 2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총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수업당 10명씩 선발하여 진행하는데 현지탐방 전후로 총 20시간을 본교에서 추가로 해당 과목 수업을 진행한다. DAIP신청 공지는 매년 4월 말경에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 아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길!

2019년 DAIP 수업

※ 과목명 / 참가교수 / 탐방지역 / 자매대학 / 기간

베트남 경제 문화탐방 / 곽준식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ransport / 2019. 6. 26 ~ 7. 5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십과 의료관광 / 박정하 / 태국

Naresuan University / 2019. 6. 26. ~ 7. 5

캄보디아 시장개척을 위한 국제마케팅 활동 / 정수원 / 캄보디아

Cambodian University for Specialties / 2019. 7. ~ 8.

동남아시아 e-스포츠문화의 이해 / 이병춘 /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 2019. 7. 1. ~ 7. 14.

인도네시아에서 IT마켓조사 및 인터넷 게임소재 발굴 / 조형국 / 인도네시아

Ciputra University / 2019. 7. 2. ~ 7. 12.

엔터테인먼트 영상디자인 / 김동현 / 중국

북경공상대학 가화학원 / 2019. 6. 20. ~ 7. 4.

실�크로드 무역과 기술 창업 / 여현진 / 우즈베키스탄

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 / 2019. 7. 1. ~ 7. 12.



Vietnam



Indonesia

DAIP 선배에게 듣다!

“당신의 DAIP는 어땠나요?”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다

경영학전공 장준원 학생(14학번)

베트남

시험 기간부터 시작된 베트남을 가기 위한 준비. 10명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에 참석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팀별로 나누어 선정한 주제를 위해 끊임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기업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 팀은 유튜브 또는 대기업을 컨택해 협업을 할 계획을 세웠기에, 제일 먼저 유튜브의 리스트를 뽑아 나열한 다음 약 20명 정도 컨택을 시도했다. 비록 그 중 1~2명만 연락이 닿아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일정이 맞지 않아 함께 하진 못했다. 이후 제일기획과의 연락에 성공했지만 이 역시 사정이 생겨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시도하고 일부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 기뻐다. 우리 팀은 현지에서 기업을 무작정 찾아가 방문하기로 했다. 일단 베트남에서 열리는 한-베(한국 베트남)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와 가장 유사한 기업들을 찾았다.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다가가서 부산에서 왔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괜히 박람회에 와서 무례한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셨다. 갑작스런 방문과 질문, 거기다 인터뷰를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어 짧게 인터뷰를 마쳤다. 이번 경험으로 나는 안되더라도 일단 도전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에게 매료되다

컴퓨터공학부 전동빈 학생(14학번)

인도네시아

DAIP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팀은 수업의 주제인 인도네시아의 IT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Plaza Marina, Galaxy Mall, Tunjungan Plaza 등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IT기기에 대한 시장 조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수업도 수업이었지만 인도네시아 탐방에서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자연'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만든 절경은 어디를 가도 감탄이 터져 나왔다. 특히 Madura 섬의 Bukit Jaddih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멋진 광경이었다. 그리고 Mt. Bromo는 2,000m가 넘는 활화산인데 이곳 정상에서 일출을 볼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정상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도 있었고, 일출을 보고 난 후 말을 타보는 경험도 색다르게 다가왔다. 발리의 6대 사원 중 하나인 Tanah Lot도 인상 깊었다. 바다 위 바위섬에 지어져 있어 조수가 높을 때는 사원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해변과 아용강 래프팅, 전통음식 등 그들의 문화와 자연 하나하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Uzbekistan



Cambodia

미지의 나라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다

International Studies과 이지영 학생(14학번)

우즈
베키스탄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거길 왜 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많았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미지의 나라였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DAIP를 통해 경험한 우즈베키스탄은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진 호감 가는 나라였다. 일정 중에 우리 팀은 트럭 생산회사인 'MAN-Auto'와 가전제품 생산회사 'Arte'를 방문했다. 두 회사 모두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규모가 크고, 한국(Samsung), 일본, 중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회사들과 제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권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다. 이는 나의 전공과는 다른 경영, 생산 등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일정의 대부분은 수도인 Tashkent에 있었지만,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Khiva, Samarkand도 방문했다. 특히 Khiva, Samarkand에서는 강의 주제인 '실크로드 무역과 기술 창업'이라는 말이 완벽히 와 닿는 곳이었다.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벽들과 그 사이사이 상점들은 실크로드 시대 상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12일은 우즈베키스탄을 자세히 알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경제, 역사, 문화 등 대부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보며 점점 더 우리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가 잦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시아 히브대학의 주인공은 나!

국제통상학전공 이수연 학생(15학번)

캄보디아

나는 올해 DAIP 캄보디아 7기에 지원해 4 : 10이란 치열한 경쟁에서 선발된 이후, 정수원 교수님에게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안전교육을 받고, 국제마케팅 체험을 위해 조별로 판매상품(화장품, 한국 전통 지갑 등)을 선정하였다.

우리 DAIP 캄보디아팀은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공항에 도착하여 자매대학인 CUS(Cambodia University for Specialties) 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아가며, 캄보디아에서 국제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30도 이상의 무더위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상품을 현지에 판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를 위해 프놈펜 시내에 있는 러시아마켓, 센트럴마켓, 쇼핑몰 등 발품을 팔아가며 직접 체험활동을 하였다.

최근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프놈펜센터를 방문하여 여동수 센터장님으로부터 캄보디아의 노동시장과 해외취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졸업 후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나로서는 현지에서 화장품판매업으로 창업하여 성공한 두 분의 선배를 만나 현지 창업에 대한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이번 DAIP를 통해 국제마케팅 분야 활동에서는 해외에서의 경험과 현지조사가 중요하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나의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세계적 공간 디자이너 이코 밀리오레 동서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 초빙

‘2019 밀라노 국제디자인 워크숍’ 지도

공간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이탈리아 출신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가 동서대에 왔다. 디자인 특성화 대학인 동서대에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전수하고, 수준 높은 글로벌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동서대는 이번 이코 밀리오레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co Migliore
Professor of DSU |
Politecnico di Milano
ASSISTANT
Hyun Beom Kim
-
WORKSHOP
COORDINATOR
Ju Young Chang
Boo Mee Park

MIGLIORE-SERVETTO ARCHITECTS

GLOBAL DESIGN SOCIETY
JUNE 2019

이코 밀리오레는 누구인가?

이코 밀리오레는 세계적인 공간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이다. 그는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당시 '토리노 도시 재생 프로젝트' 및 '쇼팽 박물관(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등 유럽 곳곳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디자인해 명성을 얻었고, 한국에서는 막스마라 코트 서울 전시회(Coats) 및 크로모티브 LED로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전통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브랜드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럭셔리 명품 가구인 미노티(Minotti)社 창립 70주년 행사를 몬차성(VILLA REALE MONZA)에서 진행해 많은 유럽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1997년 밀라노에 그의 아내이자 건축가인 마라 세르벤토(Mara Servetto)와 함께 'M+S Architect'라는 건축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CEO이기도 하다.

동서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코 밀리오레

동서대는 이코 밀리오레의 실력과 경력들을 높이 평가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 장제국 총장은 6월 25일 석좌교수 위촉장을 수여하고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인 디자인대학 명품화를 위해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자인대학은 해외 유명 석학들을 초빙해 디자인대학 석학 풀(Pool)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코 밀리오레도 그중 한 명이다.

이코 밀리오레 석좌교수는 앞으로 특강 워크숍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디자인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2019 밀라노 국제디자인 워크숍' 통해

글로벌 디자인 감각 익혀

동서대 디자인대학은 6월 25일~27일 교내 International College 빌딩에서 '2019 밀라노 국제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코 밀리오레 석좌교수와 박부미·장주영·김현범 교수가 나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2명과 디자인대학 4학년 8명, 3학년 7명 등 총 17명의 학생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가했다. 디자인대학은 워크숍 신청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자료를 토대로 심사해 참가 학생들을 선정했다.

국제디자인 워크숍 주제는 <Stage of numbers : designing a pavilion with Ico Migliore>로 설정했다. 학생들이 수(number)에 대한 다양한 발상을 하고, 파빌리온 제작을 통해 시각화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핵심이다.

파빌리온은 스파게티 면과 주사위를 이용해 제작했다. 참가 학생 17명은 모두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지만 발상에 따라 결과물은 다양하게 나왔다.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김현범 교수 또한 이탈리아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 학생들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이번 워크숍에 이어 겨울방학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이코 밀리오레 석좌교수의 'M+S Architect'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현장체험을 할 예정이다.

Workshop Review

디자인대학 3학년

Product Innovation Route 신호연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창의력 키우는 법을 배웠고,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머리와 손을 사용해서 겪는 과정 자체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갇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를 함으로써 좀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박소영

"국내에서 배우지 못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평소에 환경디자인에서 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한번 더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서대에 연일 해외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 방문

우수한 교육시설 둘러보고 특성화 분야 협력 논의

해외대학이 찾는 글로벌 대학

동서대가 신흥 글로벌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일 해외대학의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동서대의 우수한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동서대를 방문한 것이다.

특히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International College', '방송콘텐츠 제작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사 등 미디어 플랫폼을 실제 회사와 동일하게 구축하여 교내 현장 실습이 가능한 동서미디어아울렛', '3D융합센터'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센텀캠퍼스의 '소향 뮤지컬씨어터'와 '창업카페' 등의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올해 동서대를 가장 먼저 찾은 해외 대학은 중국의 '상해전기학원'이다. 지난 6월 5일 중국 상해전기학원의 주요 인사 5명이 동서대를 방문해 교환학생 협정을 맺었으며, 양 대학은 향후 교류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컴퓨터공학부 영어트랙'으로 교환학생 상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2019년 2학기부터 중국 학생 20~30명을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로 파견해 교육시키게 된다.

이어 6월 7일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스쿨(Budapest Business School)' 총장 일행이 동서대와의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확대

하기 위해 동서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대학은 교환학생 교류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향후 교수교류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폭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서대와 2015년에 디자인분야 2+2 복수학위 공동교육과정 협정을 맺은 북경공상대학 가화학원이 올해 6월 13일 다시 동서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2017년 동서대로 유학 온 '제1기 공동교육과정' 학생 10명의 올해 '졸업작품상영회'를 직접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송귀화 총장 일행은 먼저 장제국 총장을 예방하고 가화학원 학생들의 동서대 대학원 진학, 교환교수 등 양 대학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폭넓은 논의를 했으며, 6월 14일에는 가화학원 학생들의 졸업작품상영회를 직접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6월 18일에는 필리핀 국립대학 'Camarines Norte State College' 총장 일행 22명이 동서대를 방문했다. 러스티 이반송 총장 일행은 이날 장제국 총장을 예방하여 교환학생·교수교류·공동연구 등 양 대학 간 교류 협력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조만간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동서대를 향한 해외 대학들의 관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동서대의 교육 및 글로벌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세계를 향한 동서대의 이러한 위상과 움직임은 인재들의 더 큰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중국 북경공상대학 가화학원 총장일행 방문



P

U

Passion

People
I'm DSU
Scene

START
REVOL
54321.





올해 4월 14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World Barista Championship)’에서 한국인 바리스타가 챔피언 자리를 차지해 언론의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09년 2월 동서대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전주연 동문(부산 모모스커피 소속)이었다.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이하 WBC)은 커피분야 및 관련 업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회. 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꿈을 이룬 전주연 동문을 후배인 18학번 허영란 학생이 직접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_ 사회복지학부 18학번 허영란 학생



후배가 만난 자랑스러운 선배
전주연(사회복지학부 05학번) 동문

World Barista Championship에서 한국인 최초 1위를 차지하다!



모모스 커피

2007년 부산 온천장에서 4평짜리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으로 시작한 모모스 커피는 국내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카페로 평가받고 있다. 커피 전문가들은 “이번 WBC 우승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한국 스페셜티 커피인들의 꾸준한 열정이 쌓인 결과”라며 “앞으로 부산이 멜버른이나 시애틀 같은 세계적인 커피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세계적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사람이 모교 선배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우승하기까지 쉽지않은 과정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WBC는 약 60개국에서 참가하는 대회로서 커피 산업에서는 가장 큰 대회예요. WBC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경쟁을 치러서 대표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WBC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작년에도 한국 대표로 참가했었어요. 그때 14위였는데, 올해는 1위를 한 거죠. 올해 최종전에서는 저를 포함 캐나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스위스 대표까지 총 6인이 올랐어요. 사실 저는 WBC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는데, 두 번의 도전에 이렇게 1위를 차지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두 번의 도전만에 세계 챔피언이라니...,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시절 선배님의 모습이 금해집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은 아니었어요(웃음). 그 당시에는 임상사회사업전공이었어요. 임상사회사업전공에서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습을 나가보니 너무 힘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도 많아 보육교사의 꿈을 접게 되었죠. 간호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병행하기도 했고, 무척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시절, 카페 알바로 커피에 입문하고 그 이후 커피전문점인 모모스의 창업 멤버로 합류하셨다고 들어요. 커피 쪽으로 진로를 정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동서대 2~3학년 때, 학교를 마치면 지금 회사인 모모스에 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여기 일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거기다 4학년 때 실습을 나가보고는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내 에너지를 남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제가 모모스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받는 에너지가 더 많았던 거죠. 또,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받는 동시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습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제 에너지를 나누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대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식들이 지금 커피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네'라고 복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영향이 간 것 같아요. 현재 저는 모모스에 이사진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회의를 할 때면 학교에서 배운 이론에 대한 생각, 가졌었던 마인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의 가치와 마인드가 실제 내 삶에 꾸준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냥 지금이 재밌으면 결국에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지리라는 것,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세요. 그러면 미래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대부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이때에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한다면 그만큼의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니스프리,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한화불꽃로드, 스포츠 토토, 유한킴벌리, 애경...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기업들이다. 이 대기업들의 광고 영상을 제작하며 광고업계에 제대로
 이름을 알린 이가 있다. 바로 동서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한 김철진 동문이다.
 그가 2009년 졸업 후, 10년 만에 서울 강남 소재 유명광고회사인 '그룹아이디디'의 영상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동서대'라는 탄탄한 기본기와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광고회사 그룹아이디디 영상감독
 김철진(광고홍보학과 03학번) 동문

졸업 10년 만에 유명 디지털 광고에이전시의 영상감독으로 성장하다



광고, 그저 즐거워서 시작했던 일

영상과 김철진 동문과의 인연은 고등학교 방송부 시절부터다. 그때부터 영상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 거 같다'는 생각에 무조건 대학에 가서 광고를 전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광고를 하려면 어떤 대학에 가야할지 찾아보던 중 동서대 광고홍보학과를 알게 되었고, 진학을 결심했죠."

그는 졸업 후에 일단 좋아하던 촬영 일을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프로젝션을 찾게 되었고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소개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조감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다보니 어느덧 영상감독이 되어있었다고 말하는 김철진 동문. "광고 쪽 일이 그렇듯이 주말도, 밤낮도 없어요. 일이 좋아 그저 열심히 했는데,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시절, 강도 높은 교육이 지금의 나를 키운 밑바탕

치열하게 돌아가는 광고업계에서 김철진 동문이 성장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스스로의 열정도 있었지만, 동서대에서 배운 커리큘럼 덕분이었다고 강조한다. "1학년 때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배우고, 2학년부턴 본격적으로 광고PR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광고 기획안이나, 힘들게 만든 영상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은 광고주가 교수님이었던 것일 뿐, 배웠던 과정이 현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광고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광고의 유행은 바뀌어도 교수님께 배운 '광고의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고홍보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들었던 타 전공수업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광고 제작 감독이 되기 위해서 기획부터 촬영, 편집뿐만 아니라 아트, 디자인, 애니메이션, 글쓰기 등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전부 찾아들었다는 그다. "졸업하기 전까지 광고기획, 제작, PR수업은 기본으로 듣고 타 전공 수업인 영화제작, 촬영, 시나리오 작성, 사운드, 방송이론 수업, 애니메이션과 의 드로잉 수업 등 광고 제작에 필요하다고 느낀 전공 수업들을 찾아서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제작과 관련된 것이면 뭐든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커리큘럼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에게 촬영 콘터를 설명하는 김철진 감독

다양한 경험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찾길

그는 꼭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도, 대학생활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추천한다. "동서대에는 글로벌, 봉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학기 중이든, 방학 때든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기술봉사단, 낙동강봉사단, 학부 생활을 하면서 총대와 학부대표를 했던 것이 인생에 좋은 경험을 준 것 같습니다."

대내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는 소중한 사람들과 경험, 그리고 추억을 쌓았다고 덧붙인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되어 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철진 동문에게 "동서대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방향성"이었다. "저에게 동서대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찾은 곳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김철진 동문에게 동서대는 앞으로도 그가 힘든 순간, 또는 고민의 기로에서 삶의 방향성을 잡아줄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법학 비전공자의 칠전팔기 변호사 시험 합격기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경훈(화학공학부 05학번) 동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학년도에 에너지생명공학부(현 화학공학부)에 입학하여 2011학년도에 졸업한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까지 합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님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점관리는 곧 성실함의 척도

고등학교 시절 과학에 흥미가 많았던 저는 '신흥명문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동서대학교 에너지생명공학부를 선택,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후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학점'이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조건달성 및 학점관리라는 목표도 없지 않았으나, 좀 더 궁극적으로 대학 시절 자신의 '성실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학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결과적으로 한 과목(A)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4.49라는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전체수석입학/졸업).

학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라는 시련에 맞서 싸우다

수학 및 과학과 달리, 난독증이 있는 저에게 언어는 중학교 시절부터 무척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어인 영어는 저에게 더욱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란 추세 속에서 영어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2학기, 미국 SAP 4기로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프국제대학교로 떠나기 전, 2개월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영어만 듣고 영어만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은 나아진 영어 실력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죽은 공부가 아닌, 친구들과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공부를 하였고 여러 힘든 일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로선택의 기로, 더 큰 도전에 대한 결심

입학 당시에는 졸업 후 독일 베를린 공대로 석·박사과정을 밟고자 계획했지만, 학생들의 학업 보조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와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변호사로 진로를 정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였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기본적으로 정량(시험 등의 성적)평가와 정성(면접)평가로 구분되는데, 정량평가는 다시 법학적성시험(LEET), 대학성적, 공인영어성적으로 나뉩니다. 영어는 미국 SAP를 다녀온 이래로 꾸준히 공부해 토익 900을 만들어 놓았고, 학점도 관리하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난독증이 있던 저에게 언어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글을 많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철학, 사회, 법학, 경제, 미술, 음악, 영화, 과학, 시사 등 여러 분야의 저명한 저서들을 정독하기 위해 독한 마음을 먹고 절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책을 읽으며 수험 준비를 한 결과 2013학년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성적 3등, 83명 중 5등 하기도

동아대 로스쿨을 3등으로 입학했지만, 이 수치는 법학 실력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합격자의 70~80%가 서·연·고를 비롯한 명문대생인데다 당시 시행 중이던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을 가진 소위 법학 고수들이 즐비한 상태였기에, 로스쿨에서 '그들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도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는 오기도 생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83명 중 5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고, 원장님께서서는 따로 부르셔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3번의 도전, 그리고 합격

로스쿨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자 포함)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은 5일간 하루 내내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도 공부지만 체력과 정신력도 정말 중요합니다(시험이 끝난 저녁에는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고, 중간의 휴식일은 실질적으로 민사법이 워낙 광범위하여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만만하게 봤던 첫 시험에서 쓴 잔을 들어켰던 저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게 일어설지 못해 두 번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8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준비를 하였고, 2019년 4월 26일 마침내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

대학 생활 내내 많은 장학금을 받았고 SAP를 통해서 미국에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서대학교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교를 위해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후배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의 말을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저의 변호사 도전기를 들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배님들, 저도 해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끝내 당당히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동서대와 함께 끝까지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스무 살의 청춘, 뮤지컬과 20주년 기념 뮤지컬 페스티벌을 열다



Hairspray

MUSICAL FESTIVAL

DSU MUSICAL 20TH ANNIVERSARY

copyright fugart allright reserved. photographed fugart.

동서대 뮤지컬과가 벌써 20년을 맞이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어른이 된 푸른 청춘의 시작점과 같은 나이다.

뮤지컬과의 탄생과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뮤지컬과 20주년 뮤지컬 페스티벌'. 페스티벌에서는 학생들의 창작 뮤지컬과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 등 3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많은 이들의 호평과 사랑을 받았다.

창작 뮤지컬 'SWEET HOME', 韓中 합작 '빨래' 브로드웨이 뮤지컬 '헤어 스프레이' 등 3작품 무대에 올려

한강이남 최고 명문 뮤지컬 인재 양성기관으로 성장한 뮤지컬과는 '뮤지컬과 20주년 뮤지컬 페스티벌'을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센텀캠퍼스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동서대 LINC+ 사업단 지원을 받아 3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다.

제일 먼저 창작 뮤지컬 'SWEET HOME'이 민석소극장에서 공연됐다. 이 작품은 뮤지컬과 20주년 기념 뮤지컬과 3학년 정기워크숍으로 무대에 올린 것이다. 'SWEET HOME'은 집이라는 것이, 단지 공간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그 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집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포함되었을 때 진정한 HOME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한 작품이다.

이어 동서대학교·중국 전매대학교가 합작으로 탄생시킨 뮤지컬 '빨래'가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양 대학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선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헤어 스프레이'가 센텀 캠퍼스 소향씨어터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뮤지컬과 4학년 1학기 정기워크숍으로 준비한 것이다. 매 공연마다 1,000여 석이 꽉 차는 등 대성황을 이뤄 그 인기를 증명했다. 이 작품은 헤어 스프레이로 머리를 세팅하던 1960년대 초, 딱딱해진 머리카락만큼이나 외모에 대한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차별받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뮤지컬과 3학년 정기워크숍으로 무대에 올린 창작 뮤지컬 'SWEET HOME'



동서대학교·중국 전매대학교가 합작으로 탄생시킨 뮤지컬 '빨래'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뮤지컬과

뮤지컬과는 한국 최초로 설립된 뮤지컬 인재 양성의 산실로, DIMF(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2회 대상 수상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대형 뮤지컬 오디션에 전국 대학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 교수진, 커리큘럼으로 한국 뮤지컬계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견명, 오소연, 황미영 등의 뮤지컬과 영화계 스타를 배출한 막강 동문의 저력과 DS뮤지컬컴퍼니 등 성공한 동문 기업들의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 뮤지컬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통해 중국 및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소향씨어터

소향씨어터는 단순한 극장이 아닌, 뮤지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뮤지컬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꿈의 무대일뿐만 아니라 초대형 뮤지컬들을 무대에 올리는 부산의 대표 뮤지컬 극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5번지
규모 : 지하 2층 ~ 지상 2층
좌석 : 총 1,134석(1층 : 699석, 2층 : 362석, 휠체어 12석, OP 61석)

간절함과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

IBK기업은행에 당당히 첫발을 내딛다

꿈이 확실한 사람은 모든 도전에 망설임이 없고, 매 도전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그 간절함과 노력의 결정체는 도전자를 평가하는 면접관에게 진정성 있는 시그널로 와 닿기 마련이다.
IBK기업은행에 최종합격하여 연수 중인 하청민 동문만의 시그널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을까.

많은 은행 중에 IBK기업은행에 도전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IBK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지난 58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중 은행들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인수합병 없이 하나의 조직으로, 튼튼하고 강한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인지, 기업은행의 지점들을 방문해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행원 분들이 애사심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 역시 기업은행의 일원이 되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 도움이 된 동세대 프로그램이 있나요

취업지원센터에서 자소서 첨삭을 받기도 했고 1박2일 캠프를 간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부산의 강소기업 탐방 일정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취업시장에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직 있다면 꼭 참여해서 채용시장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 혹은 대외 경험이 있나요

KB국민은행 마케팅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거스름돈의 전자화 및 기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평소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특허 신청까지 진행해 본 경험은 자신감이라는 큰 무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할 때 자소서나 면접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좋은 경험과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동서대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해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상해가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푸동의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서서 발아래 수많은 불빛들을 보면서 금융인에 대한 꿈과 목표를 세우며 학업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IBK기업은행' 예비 지원자들을 위한 면접과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제 경우는 자산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운 것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FC로 등록하여 다양한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또 면접 및 필기 준비를 위해 퇴사 후 '독금사'라는 사이트에서 스터디를 만들어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간절하게 보여준다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세대 후배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天生我才必有用(천생아재필유용), "하늘이 나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반드시 쓰일 곳이 있으리라"는 고사성어를 믿고, 수많은 실패와 거절을 겪은 뒤 IBK기업은행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때로는 너무 힘들어 스스로를 부정하며 비관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후배님들도 모두 힘들 때 "나는 어떻게든 잘 될 사람이다"라고 웃으며 스스로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수하신 교수님들과 열정적인 학우들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를 보여주는 그날까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들 때 “나는 어떻게든 잘 될 사람이다”라고
웃으며 스스로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BDAD
(Before Dongseo After Dongseo)를
보여주는 그날까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뜻하는 바, 즉 목표의식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만다는 의미로 분명한 목표와 도전은 마침내 성취를 불러온다는 뜻이다. 동서대에도 이처럼 불굴의 도전 정신과 노력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인재가 있어 화제다.

글_ 광고홍보학과 16학번 남유진 학생

도전, GS G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은 GS Shop과 한국 언론학회에서 주관하는 장학금으로, 작년에 학과 선배가 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그때 막연히 나도 내년엔 신청해야지, 하고 생각만 해오다가 그만 날짜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마감 당일에 공고문을 알게 됐다.

순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전공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뜻깊은 장학금이었고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 같았다. 자기 소개서는 학교생활 틈틈이 그간 만들어온 영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썼다. 예를 들면 IFS수업에서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대외활동 중에 제작한 영상 등을 짚 정리하고 영화 유튜브가 되겠다는 포부로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2학년 때부터 해왔던 교내 연구회 활동과 광고 관련 공모전 참여 수기를 비롯해 영화 관련 대외활동들을 꼼꼼하게 서술했다.

결과 발표일 당일에 최종 선발 명단에 올라있는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지 모른다. 너무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오래된 노트북을 새 걸로 바꾸고, 영어 학원에 수강 등록을 했다.

끝없는 열정으로 각종 대외활동을 섭렵하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도전정신으로 일구어낸 성과**

- GS Shop 콘텐츠 리더 장학금 선정 /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 사업 선정
- 부산 파이낸셜뉴스 수업, 후쿠오카 취재 / 중국 전매대학교, 한-중 공익광고교류회 주부산일본국 총영사관 '쿨재팬 리포터'
- 2019년 KOSAC 공모전 지역예선 우수상(전국대회 진출권 확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문이라 해도

우선 두드리고, 열기 위해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훌륭한 자산이 되어준 다양한 해외경험

나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확고한 목표를 가졌는데, 그는 바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였다. 물론 학교 안에서, 한국 안에서 해보는 경험도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더 넓은 무대에 올라보고 싶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몸소 배우고 느끼며 전문과 소양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몇 번에 걸친 해외연수 경험은 내게 귀중한 자산이 되어줬다. 2018년에는 학과 내에서 부산 파이낸셜 뉴스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에 취재를 다녀왔다. 같은 해 겨울에는 중국 전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중 공익광고 교류에 참가하여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공익광고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심도 있게 알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초에는 주부산일본국 총영사관에서 선발한 '쿨재팬 리포터'로 뽑혀 일본 나가사키 현과 후쿠오카로 문화체험 및 취재를 다녀오는 등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해왔다. 쿨재팬 리포터 활동 기간은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몸소 일본 문화를 겪어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기억으로 남았다.

전공과 어학 공부 두 마리 토끼 잡으려

호주로 go!

올해 내 목표는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원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좋은 기회를 찾던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을 발견했고, 호주로 지원하게 됐다.

호주를 택한 이유는 일단 영어권 국가이기도 했고, 호주는 '그레이엄을 만나다' 등과 같은 공익광고를 잘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했기에 전공과 어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전공이 광고 쪽임을 어필하기 위해 호주의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공익광고 제작 프로젝트 계획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학기 중 IFS 수업에서 제작한 공익광고와 그동안 제작해온 영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술하며 내 열정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적극적으로 알렸다.

연수는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달간 호주 멜버른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짧

은 기간이지만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영원한 도전의 연속

지금은 호주 연수를 위한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기획 중이다. 또한 여행 콘텐츠 플랫폼 '여행에 미치다'에서 진행되는 고프로 체험단에 선발된 기회를 활용해 다양한 고프로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물론 연수가 끝난 후에도 영어 공부와 영상 제작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영화 마케터로서의 실무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이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 해외에서 영화 마케터로 활약하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문이라 해도 우선 두드리고, 열기 위해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 많은 대외활동과 장학금, 공모전 등에서 솔한 탈락을 경험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은 다시 좋은 자양분이 되어주기도 한다. 2017년 KOSAC 공모전에서 지역예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 다시 재도전하여 지역에서 우수상을 거머쥐고, 9월 전국대회 진출권을 얻어낸 것처럼 말이다.



“동서대에 오기 전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몰랐다”고 말하는 노찬빈 학생.
자신의 길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던 노찬빈 학생은
동서대에 오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었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을 통해 키운 영어실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공을 살려 ‘세계적인 영상콘텐츠 전문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입학 후 1년 6개월, 동서대에서 나의 꿈을 발견하다

디지털콘텐츠학부 2학년 노찬빈 학생



동서대의 가능성은, 곧 나의 가능성으로

초등학교 5학년, 우연히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중공업의 광고 카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노찬빈 학생. 그날 이후, 노찬빈 학생의 꿈은 '자신이 영상 광고를 보며 받았던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는 것이 되었다. 정확히 말해 '영상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다.

시간은 흘러 노찬빈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때까지도 영상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변함없었다. "부산 대명여고 시절, 대학진학상담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저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알아보시고, 동서대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동서대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학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대학이더라고요"

그 순간 노찬빈 학생은 동서대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영상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그에게 동서대는 그야말로 '내가 가야 하는 대학'이었던 것이다. 당시 영상디자이너로 유명한 수도권 타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동서대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지라, 가지 않았다.

운명처럼 다가온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에 지원해 합격한 노찬빈 학생에게 입학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집중 교육 과정이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뤄지고, 원어민 교수들이 수업을 담당한다.

망설임 없이 "OK!"를 외친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 학교로 갔다. "처음에는 외국인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원어민 교수님, 외국인 친구들과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문법이 엉망이어도 일단 말로 내뱉었고, 과제는 빠지지 않고 꼼꼼히 수행했어요"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서 영어 에세이를 쓰고, 수정받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쓴 에세이를 몽땅 외워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 원어민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 글로벌 프로그램 학생 등 70여명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세례가 쏟아져 진땀을 흘리며 답변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런 노력과 인내 덕분에 노찬빈 학생은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참가한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 중에는 처음으로 발표상을 받았다. 특히 글로벌영어 프로그램 전 과목에서 A+를 받기도 했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노찬빈 학생

마블, 디즈니, 픽사... 글로벌 무대에 내 꿈을 펼치는 그날까지

노찬빈 학생은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 덕에 언어실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외국 문화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 꿈을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보야겠다는 자신감도 이즈음에 생긴 것 같아요"

노찬빈 학생은 올해 2학년부턴 본격적으로 전공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어느 날 보러 간 영화 속에서 전공에서 배운 요소가 보였다는 그. "너무 신기하고 멋졌어요. 저도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찬빈 학생은 전공과 영어 실력을 확실히 닦아 마블이나 디즈니, 픽사와 같은 세계적인 콘텐츠 회사에 취직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가 되어 인터뷰를 한다면 '동서대학교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 학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외국 문화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 꿈을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보야겠다는 자신감도

이즈음에 생긴 것 같아요.”

올해 5월 16일 민석도서관에서 열린 제13회 동서대학교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에서 일본어학과 4학년 김민기 학생이 '내가 찾아낸 목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최고상인 '총장상'을 수상했다. 놀라운 사실은 입학 당시 겨우 일본어로 인사말 정도 하던 학생이 4년 뒤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4년간 유학 한 번 가지 않고 이만큼 일본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김민기 학생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어 초급자에서 일본어 工神이 되기까지!

동서대 일본어스피치 콘테스트에서 '총장상' 받은 김민기(일본어학과 4학년) 학생



나의 실력 인정하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공부

처음 일본어학과에 들어왔을 당시 저는 간단한 인사말이나 히라가나 몇 자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입학할 때 이미 일본어를 충분히 접하고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자연히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뒤쳐져 있는 제 실력을 인정하고 기본부터 천천히, 꾸준히 하면 그들처럼 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은 늘지 않을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꾸준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라 모

르는 것이 있으면 대부분 검색해 알 수 있었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2개월 정도 일본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글로벌 특특목’ 등 학교 프로그램이 큰 도움

학교의 지원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특특목’과 선·후배간 교류하는 ‘애니타임 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선배와 일본인과의 교류로 좀 더 견문을 넓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튜터 선배님 덕분에 저

의 최대 약점인 ‘듣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글로벌 특특목에서 만난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혼동이 오는 표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스피치 대회는 저 혼자 힘으로 입상한 것이 아닙니다. 발음교정을 도와주신 후지와라 교수님과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자 덕분에 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해도 도전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어떤 유능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서대 영문 홍보영상

AIM HIGHER WITH DONGSEO UNIVERSITY



올해 4월, 이방인의 시선에서 본 동서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제작되었다. 영상 제작을 주도한 이들은 바로 동서대에 유학 중인 3명의 학생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동서대, 그리고 부산의 이미지와 매력을 담은 영상은 동서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atch?v=1aXp8P9E00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젊음과 생기가 넘치는 동서대와 부산의 모습

동서대에 유학 중인 마구누손 마커스(아이슬랜드), 바지코 블리디슬라브(벨라루스), 바지코 그레타(리투아니아) 3명이 힘을 모아 동서대 영문버전 홍보영상 'Aim Higher with Dongseo University'(지도교수 박홍식)를 제작했다. 이 학생들은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MRU)에서 2+2 과정으로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로 유학을 와서 수학 중이다.

특히 이번 영상은 마커스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동서대와 부산을 매력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영상을 볼 외국인들이 더욱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드론촬영, 특수효과 등 다양한 촬영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동서대의 아름다운 캠퍼스와 활기찬 캠퍼스 생활, 그리고 젊음이 넘쳐나는 부산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 영상은 리투아니아 로메리스대학에 보내져 동서대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디지털콘텐츠학부 마구누손 마커스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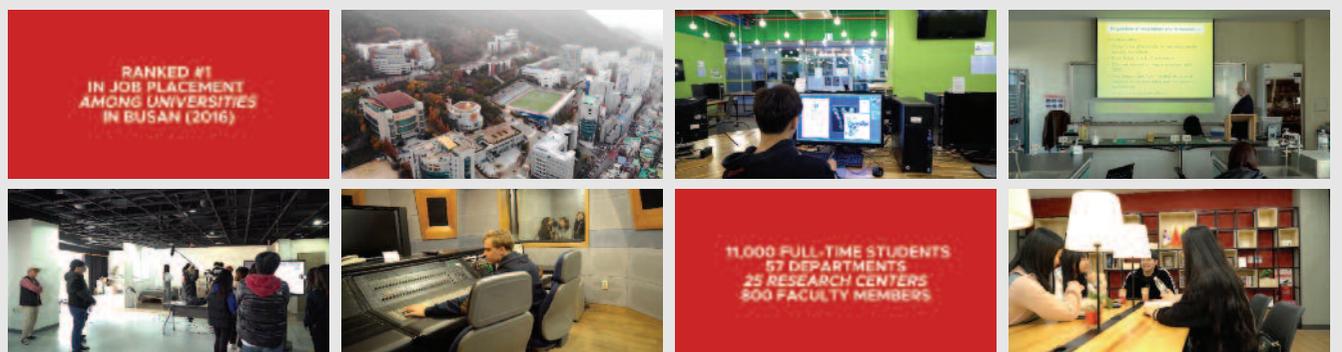
“지금까지 많은 대학 홍보영상들을 봐왔지만 대부분 비슷해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대의 대표적인 이미지와 양질의 정보를 주면서도, 눈을 땔 수 없는 신선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

“타임랩스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타임랩스를 촬영하려고 서면 한복판에 카메라를 몇 시간 동안이나 세워뒀어요. 몇 시간 후에 제가 다시 촬영장소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내가 생각하는 동서대

“저는 동서대가 한국에서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이 향후 대학의 성공을 향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대의 또 다른 장점은 실제 직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INTERNATIONAL MARKET DONG UNIVERSITY

문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다

ama,
le, Spain

‘2019 International Day’ 외국 유학생과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 교류

5월 28일 동서대 캠퍼스에는 작은 지구촌이 만들어졌다.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칠레, 스페인 등의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국가별로 부스를 설치해 자신들의 전통음식이나 의상 등을 선보인 ‘2019 International Day’ 때문이었다. 동서대에는 64개국 1,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IT,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영화영상 등 첨단 학문과 기술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다.

International Day에서는 이들의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 문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서로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뿐이었다. 전 세계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나눈 이날의 시간들은 학생들의 가슴에 소중한 또 하나의 추억이자, 경험으로 남았을 것이다.

INTERNATIONAL
DONGSEO
2019

May
Meet
Market

Dongseo
International
Market

May 28th 10:00 - 16:00
IC 1st floor

Traditional
GAME
1. Tu-Ho
2. Fakji



Minseok
College of
Liberal
Education
MCLE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교양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민석
교양
대학

Minseok College of
Liberal Education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으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다. 이제는 넓은 식견을 가진 인재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 그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초학문분야와 인성에 대한 교육'이다. 이를 통틀어 '교양교육'이라고 한다. 교양교육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의 원천이자 기본을 갖춘 학생 양성을 위한 학문의 기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앞서가기 위해 동서대는 '인문친화적'이고 '학생중심적 리버럴 아트 교육공간'인 '민석교양대학'을 설립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동서백일장’은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석교양대학의 교육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회다.

‘디자인’과 ‘글쓰기’ 등 특성화된 교양교육

동서대는 실용적 가치의 학문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바탕이 되어 주는 교양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대의 교육 이념과 철학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민석교양대학’이다. 민석교양대학은 보편적인 필수 교양과 선택 교양 수업을 실시하면서, 색다르고 다양한 교양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디자인’ 교육이다. 동서대는 디자인 특성화 대학으로서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디자인분야 CK- I 교육부 특성화사업 및 디자인분야 명품 우수학부(과)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민석교양대학은 동서대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1학년 전원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필수교양과목으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글쓰기 클리닉과 기초과학(수학, 물리)클리닉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는 수업이다. 특히

글쓰기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 더욱 심도 있는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담당교수들에게 첨삭지도를 받도록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발굴

동서대는 학생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Liberal Arts 페스티벌’이 있다. Liberal Arts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직접 듣고 싶은 교양강좌를 제안하는 동서대만의 독특한 경진대회다. 2017년부터 매년 학생들이 제안하는 3개의 교양강좌가 실제 교양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의 제안으로 편성된 교양강좌로는 ‘청림 :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세계의

공통어 : 음악’, ‘미디어로 본 한국사’, ‘My Child 부모교육’ 등이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서백일장’.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석교양대학의 교육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회다. 동서백일장은 특별한 운영방법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야외 ‘뮤즈동산’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전자기기의 도움 없이 자필로 창작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운영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올해만 354명이 신청하는 등 그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에는 약 40여 명에게 포상을 하였다.

과목 간 접목과 복수전공으로 ‘융합교육’ 실현

민석교양대학은 최근 교육의 트렌드인 ‘융합’을 교양교육에도 접목시켰다. 이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개설된 ‘크로스오버 교실’이다.

크로스오버 교실은 인류사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사람, 놀이, 미래, 아시아)와 동서대의 4대 역량을 연결해 진행하는 융합 교양강좌이다.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기관으로 나가서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이론 수업에 익숙해있던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학기에만 개설되던 수업은 올해부터 1·2학기 모두 개설되어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양학사 수료가 가능해 본 전공과 더불어 두 가지 학위도 취득 가능하다. 자신의 전공에 색다른 교양 학문적 소양까지 더해 더욱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교양학사 트랙에는 융합기반교양, 소프트웨어응용, 문화콘텐츠, 기업가 정신, 공공서비스까지 다섯 가지 학문 분야가 있다. 매년 꾸준히 학생들이 교양학사 복수학위를 받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5명의 졸업생이 복수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교육성과를 이루었다.

한 발 앞선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으로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내려가고 있는 민석교양대학.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민석교양대학의 행보는 늘 새롭고, 혁신적일 것이다.

Interview

박성미 교수(사회복지학부)
민석교양대학 학장

교양을 품은
인재들이 가지는
가치는
무한합니다

교양기초교육이 왜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인간의 문화적 삶이 그 근본 양식에서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의 본성, 형태, 역할 등도 격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만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교양기초교육(기초능력교육, 교양교육,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넘어서서 교양기초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해(Literacy)능력, 총체적 조망 능력, 지식창출 능력, 소통과 공감 및 협동 능력, 지식융합능력 등을 함양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를 자신감 있게 맞이하도록 교양기초교육에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교양기초의 기본이 되는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확장님만의 독서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 추천도서의 늪에 빠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자!

추천도서는 추천일 뿐입니다. 필수가 아니죠. 독서는 장르 구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즐거운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니, 독서도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둘째,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한 권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책 읽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소제목을 먼저 읽고, 관심 주제가 있으면 찾아서 글의 내용을 면밀하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셋째,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의 원작을 찾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재미있게 봤던 영화의 원작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색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픈 말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태양과 달이 하나이듯 말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내 주변의 타인들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자타를 소중히 여길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되게 소통하면서 삶의 가치를 의미 있게 누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중한 '나만의 꿈'을 동시대에서 발견하고 발전시켜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덜어

국제기술봉사단 해외 농촌지역 봉사 &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을 채우다!





여름방학에는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도 불타오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기술봉사단’과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소외된, 혹은 소외되기 쉬운 작은 마을에 학생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봉사에 나서고 있다. 봉사를 통해 동서대 그리고 학생들이 전하고픈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에서 흘린 25박 26일간의 값진 땀방울

동서대 국제기술봉사단은 수라바야 내 마그딴 지역(1996-2005년), 꼬띠리 지역(2006-2013년), 모조케르토 지역(2014년-), 쿠팡 지역(2016년-)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보통 한두 차례 일회성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나 대학은 많지만 20여 년을 한결같이 국제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학은 드물기에, 동서대의 국제기술봉사단은 그만큼 빛이 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기술봉사단이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려 25박 26일간의 인도네시아 봉사를 다녀왔다. 단장 박병주 교수와 지원 인력, 학생 32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이번 제24기 국제기술봉사단(이하 봉사단)은 출국에 앞서 7월 16일 U-IT관에 모여 기대에 찬 표정으로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에서 학생들은 “24기 단원 모두 우리나라보다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 가셔도 잘하고 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출발했다. 2018년 10월 선발된 이번 봉사단은 봉사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학교육과 프로젝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약 9개월간의 철저한 준비를 마친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8개 마을에 4명씩 분산되어 현지 마을 주민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들은 각각 마을에서 ‘기술지원·시설환경개선 프로젝트’와 ‘교육·복지·문화프로젝트’의 임무를 수행했다. 기술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자가발전장치 설치와 태양광 발전 가로등 설치, 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과학과 미술, 태권도 교육, 한국음식 소개, 바자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교육과 복지, 문화 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약 한 달간의 시간.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가로등을 설치해주고,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사실 이들의 어려운 현실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는다. 하지만 봉사단의 이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마을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생활이 편리해져 삶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은 물론이고 학생들 모두가 함께 나누고 나아간다면 못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오직 봉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값진 시간과 경험들. 20년 넘게 동서대가 국제기술봉사단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ini Interview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최고임을 배웠습니다!”

이벤트-컨벤션학전공 3학년 최나영

출국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는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한 달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2018년 10월 선발된 이후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와 현지 주민들과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저희가 참가하는 해외봉사단체인 COP의 오프닝 세례모니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나요?

처음 인도네시아의 봉사지역에 도착했을 땐 해외 홈스테이의 설렘보단 이곳에서 한 달을 지내야한다는 막막한 심경이 앞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누렸던 문명이 사라지고 그나마 데이터가 잘 터지는 집을 찾아다니며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매일같이,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부족한 영어실력 탓에 친구들과 원활히 소통하긴 힘들어도 프로젝트를 하나씩 수행하고 대화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뜻 먼저 인사하지 못해도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어를 연습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준비해야 했던 것은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과 마음에 남나요?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2명의 학생들이 뜻을 맞춰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선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추억이고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또다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살면서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먼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값진 경험들은 오직 국제기술봉사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술봉사단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저는 국제기술봉사단에 지원할 때 ‘과연 내가 한 달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찌지?’라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지원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제기술봉사단에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국제기술봉사단을 통해 인생을 바꿀 한 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DMZ 해마루촌에서의 10번째 뜨거운 여름

‘DMZ 해마루촌’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로부터 2km 떨어진 민통선 내 자리한 실향민 1세대를 위한 정착촌이며 정부의 실향민 정착촌 조성 계획에 따라 파주시 동파리 일대 10만여㎡에 조성되었다. 이곳은 한국 전쟁 후 출입이 통제된 덕에 자연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세계적 보호 대상지이다. 현재 60가구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DMZ 해마루촌에서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퍼블릭디자인 앤 라이팅 연구소(소장 안병진 교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심 과제로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0년부터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여름 디자인 봉사활동이다.

특히 올해 DMZ 지역이 생태 박물관 보호지역지정을 앞두고 있어, 그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마을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2019년 디자인 테마는 ‘생태 박물관 {숲}’. 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

들로 구성된 다양한 사인 조형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과 마을의 식당, 카페, 갤러리 등 마을 전체가 ‘생태 숲’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작년 봉사활동으로 구성된 ‘2018 DMZ 평화포스터전’을 DMZ의 생태를 주제로 한 ‘2019 DMZ 생태 포스터전’으로 재구성한 21개의 작품 선보였고 더불어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갤러리 바닥 스크린 프린팅 작업을 완성하여 갤러리에 관람객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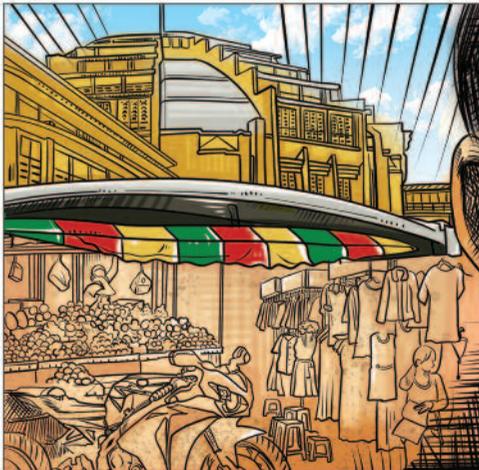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0년에는 마을 창고 아트 월 조성과 마을 회관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매년 고라니 조형물을 여러 형태로 설치하여 상징화하였으며, 기존 공원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다. 2016년에는 폐공간을 카페 ‘앉았다 가세요’로 재생, 2017년에는 공터를 공공공간으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창고를 재생하여 ‘DMZ 평화 갤러리’를 구축하였다.



My DSU Diary

동서대 3인의 잊지 못할 여름방학

동서대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학기보다 더욱 바쁘고, 다이내믹해진다. 여기 동서대 글로벌 프로그램인 '국제기술봉사단', '아시아썸머프로그램(ASP)', '아시아탐방프로그램(DAIP)'을 통해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3인이 있다. DAIP를 다녀온 '석진'과 ASP의 주역 '태형', 국제기술봉사단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고 온 '지민'이까지! 그들의 울고 웃었던 특별했던 여름방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다음날, 마켓

한국 화장품 유명한 거 아시죠?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하양게불태웠다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oo



그뻘이나 어디. 캄보디아 내 국제기구, 한인기업 등 캄보디아 주요 기관과 기업들도 둘러봤어. 캄보디아 경제부터 문화, 사회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고 배웠어.

그 유명하던 앙코르 와트도 다녀왔어?

당연하지! 여기 선물!



나는 누나가 작년에 참가했던 ASP를 추천해주더라고. 누나가 그리 믿음은 안 가지만, ASP 다녀온 다른 선배들 평도 워낙에 좋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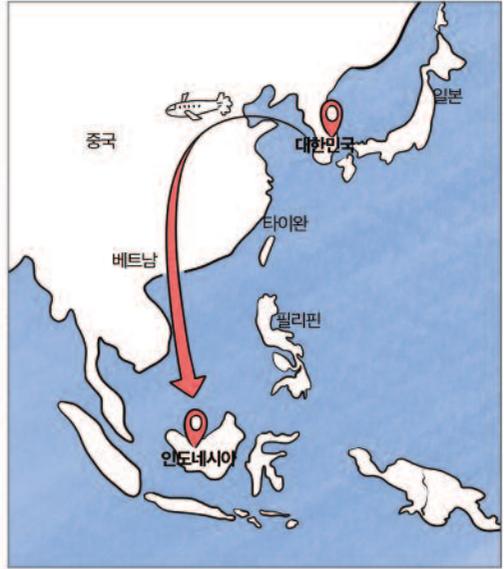
어땠어? 나도 내년엔 가볼까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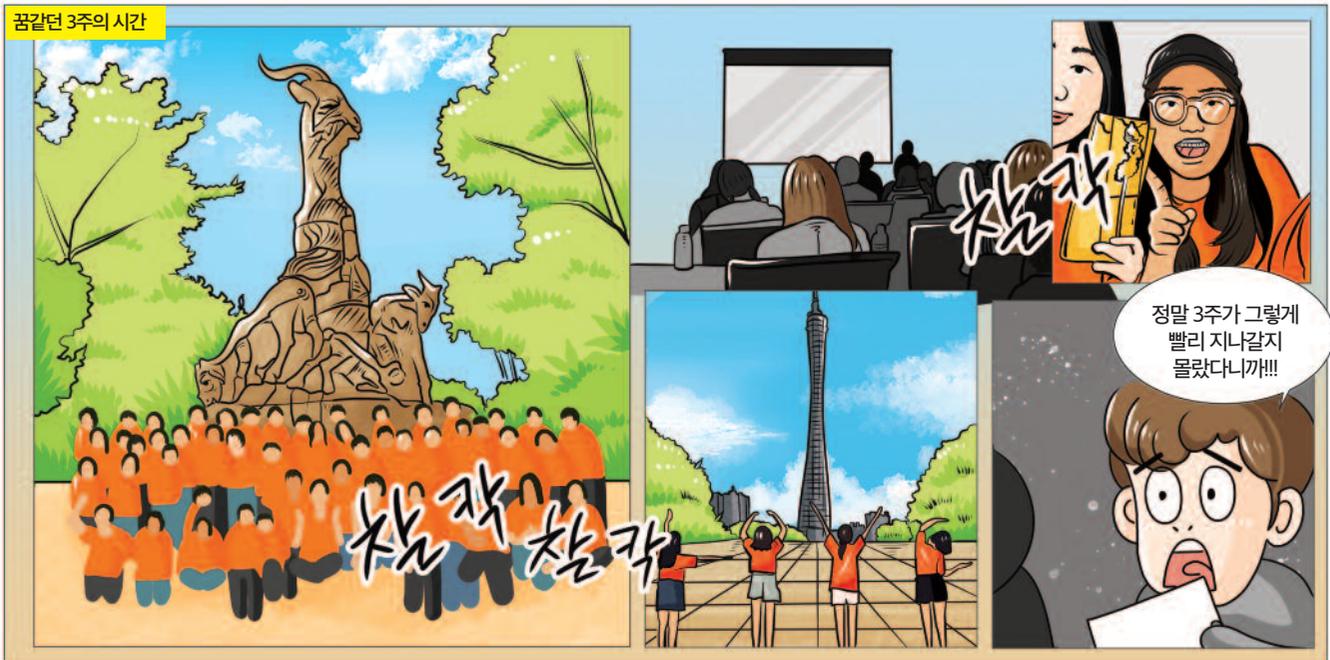
약 2달전, ASP 떠나기 전 태형의 집

누나, 나 내일 ASP 때문에 인도네시아 가~

뭐? ASMR 한다고?



참가 학생들은 ASP 기간 동안 2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며 수료 후 4학점을 인정받는다.







청춘이 가장

민석축제 & 체육대회





‘뜨거워지는 순간’

올해도 어김없이 청춘의 열기에 몸과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과 이벤트에 즐겁게 몸과 마음을 내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고 즐겼다는 것. 청춘처럼 만개한 5월의 꽃과 함께 했던 동서대 민석축제와 체육대회의 순간들을 다시금 펼쳐본다.



제9대 장제국 총장 취임

‘VISION 2030’ 청사진을 통해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2월 19일 동서대 제9대 장제국 총장 취임식이 소향아트홀에서 열렸다. 장제국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VISION 2030’ 청사진을 선포했다. ‘VISION 2030’은 지난 4년 초석을 다진 미래형대학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 명실상부한 新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장 총장은 “교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첨단화는 물론이고 재정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계획이 완성되는 2030년이면 우리 대학은 그 어떤 외부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아의 방주’ 같은 대학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모두 5가지 실천과제를 담은 새로운 비전은 각각 다른 방향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변에 깔린 골자는 한 마디로 ‘변화와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장제국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7대, 8대 총장 역임 동안 이뤄진 8년간의 성과를 회고했다. 입시경쟁률과 취업률은 부·울·경 사립대

학 중에서 단연코 최고권으로 발돋움했고 산업계 평판도는 해마다 전국 4년제 대학들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취임식은 취임감사예배, 취임선서, 교기전달, 취임사, 격려사, 꽃다발 증정, 뮤지컬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

2019년 CAMPUS Asia 이동캠퍼스 개강식이 3월 1일 열렸다. 개강식에는 동서대 동아시아 학과 신입생 20명과 2019학년도 이동캠퍼스 초청학생들인 광동외어외무대 학생 20명, 리츠메이칸대 학생 19명 등이 참여했다.



민석도서관에 'Royal Azalea Gallery' 개관

5월 2일 민석도서관 이용자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Royal Azalea Gallery' 개관식이 열렸다. 정권섭 전 총장은 갤러리를 위해 그림·병풍 14점을 기증하며 여전한 동서대 사랑을 보여줬다.



간호학과 제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4월 30일 간호학과 3학년 64명은 '제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했다. 행사에서 간호학과 1학년 52명은 선배들을 위해 수화와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제25회 동서디자인미술실기대회

디자인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5월 4일 디자인홀, 전자정보관 등에서 제25회 동서디자인미술실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교생 1,003명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5월 31일 디자인홀에서 열렸다.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5월 15일 동서대는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원인력의 전문화, 산업체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지원단 대학발(發) 창업 붐 선도

창업지원단이 주최한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에 무려 111개 팀의 (예비) 창업자가 지원해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2020년 1월까지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동하게 된다.



제9기 미주 캠퍼스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5월 7일 미주캠퍼스에서 제9기 미주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는 미국 연방하원에 재도전하는 영 김 (Young Kim)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골퍼 재닛 여(UC어바인) 등에게 장학금도 수여됐다.



2019 국제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7월 24일 ~ 30일 '국제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 학술대회 및 워크숍'이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서대와 일본 지바대, 중국 광둥공과대 등 아시아 10개 대학이 참가해 부산의 길 찾기 서비스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되었다.

DSU NEWS



한·중멀티미디어디자인학원 제13회 수료식 및 졸업작품전 개최

4월 24일 중국 상해공정기술대학에서 한·중멀티미디어디자인학원 제13회 수료식이 열렸다. 중국 학생들이 중국과 동서대에서 교육 받는 시스템으로 올해는 35명이 수료했다.



관광학부 이벤트 전문 플랫폼 개발

동서대 관광·MICE 센터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과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이 부산지역에 이벤트 전문 제공 웹 로봇 소프트웨어인 '놀라(nolla)'(www.nolla.kr)를 개발하여 사업화에 나섰다.



관광 서포터즈 누비누비 4기 출범

6월 20일 관광 서포터즈인 '누비누비 4기' 발대식이 센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관광학부 32명이 선발된 '누비누비 4기'는 활동범위를 부·울·경으로 넓혀 신규 잠재관광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제5회 냉정교과서 프로젝트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지하철 2호선 역사인 냉정역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역사성을 알리는 작업을 5년째 해오고 있다. 올해는 6월 12일 그래픽루트 2학년 31명이 참가한 '냉정교과서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20대 눈으로 바라본 이들의 청춘과 대학 생활에 대해 유쾌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꾸밈없이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학생들이 정성을 들여 해마다 내놓고 있는 프로젝트에 힘입어 냉정역이 과거 삭막했던 역 분위기에서 탈피해 사상구 주례동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9-1학기 외국인 유학생 수료식 및 종강식

'International College 외국인 유학생 수료식 및 종강식'이 6월 19일 소향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 수료생은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2+2 수료자 11명, DIS 졸업예정자 5명, 컴퓨터공학부 졸업예정자 11명, 디자인대학 화화학원 졸업예정자 9명 등 36명이다.



'2019년 실천창업체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2019년 실천창업체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300여 명의 학생창업 유망팀에게 총 1억 원의 창업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종 우수팀은 향후 창업지원단의 후속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호주·중국 국제워크숍

디자인대학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International College 빌딩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동서대, 모나쉬대, 상해공정기술대까지 총 3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워크숍 외에 센터캠퍼스를 견학하고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일대의 문화와 역사 등을 체험했다.



대통령 표창 받은 송승근 교수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는 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되어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가상현실·IoT·게임 등 규제 개선에 힘써, ICT 업계의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정선 부총장 과학기술훈장 응비장 수상

4월 22일 김정선 부총장이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자로 선정되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과학기술훈장 응비장(3급)을 수상했다.



장제국 총장 21세기정치학회 이사장 선임

2월 12일 장제국 총장이 센터캠퍼스에서 개최된 '2019 21세기정치학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1세기정치학회는 50여년의 전통을 가진 부·울·경 지역의 지성계 모임으로 회원은 450여 명에 이른다.



**조세영 前동서대 특임교수
외교부 제1차관 임명**

동서대 일본연구소장소장과 국제통상물류학부 특임교수를 역임한 조세영 씨가 외교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韓人 정치스타' 영 김 특강

5월 17일 미국 정치계의 떠오르는 '韓人 정치스타' 영 김(Young Kim)이 동서대를 방문했다. 영 김은 이날 장제국 총장을 예방해 한·미 간 교육교류와 동서대 학생들의 미국진출 지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영 김은 민석도서관에서 '성공하는 실패, 실패하는 성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하강진 교수 축석루 시문 집대성

진주 축석루는 조선시대 수많은 문인들의 시문(詩文)에 술하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하강진 교수는 국내 최초로 이러한 시문들을 엮어 『역대 축석루 시문 대집성』을 출간했다.

‘나의 가치’에 집중하다

동서대는 ‘The Only One’의 가치 구현을 위해
오직 학생 개개인이 부여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특화된 글로벌 프로그램과
LINC+, ACE+사업, 다양한 융합·창의교육 등은
졸업 후, 동서인들이 밝은 미래와 만나는
기회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롯이 ‘나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학, 동서대입니다.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www.dongseo.ac.kr
T 051 313 2001~4